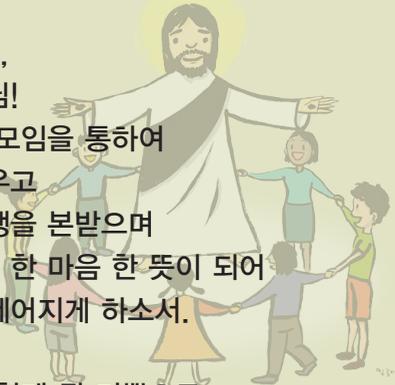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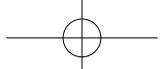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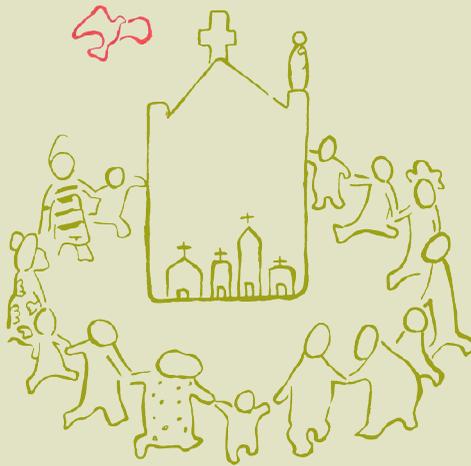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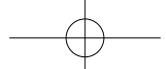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19 | 5 | 제115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samok.cathms.kr>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 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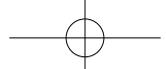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부활 제4주일(5월 12일)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요한 10,2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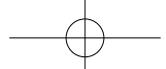
착한 목자 그리스도

- (무리요, 1660, Oil on canvas,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박물관 소장) -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요한 10,27-28,30)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사랑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양들은 언제나 목자 곁에 모이고, 목자의 소리를 알아들으며, 목자를 따릅니다.

지영현 시문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서울주보, 2013. 4. 21.



시작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54장 “주님은 나의 목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당신께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 주님, 여기 모인 저희 모두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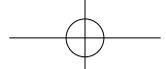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요한 10,27)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요한 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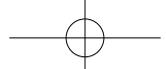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서 지켜주신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목소리들 중에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을 보면 울며 보채다가도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하고 미소를 짓곤 합니다. 아이들처럼 우리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나를 돌보아 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안심을 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소리를 듣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목소리만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안함에 떨며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끝



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 곁으로 오라고, 당신과 함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잠시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을 통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불안함이 아닌 편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다른 양들에게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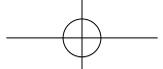
-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54장 “주님은 나의 목자”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부활 제5주일(5월 19일)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1-33 1.3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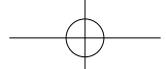


돌아온 탕자

- 렘브란트 1669, Oil on canvas -

탕자의 비유(루카 15,11-32)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잘못을 묻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꼭 안아줄 뿐입니다. 렘브란트는 돌아온 아들의 어깨에 얹은 손을 한쪽은 어머니의 손으로, 또 한쪽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려넣음으로써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기다리던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애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4. 28.



시작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14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 마음에 드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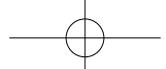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ㄱ,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방에서 31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32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33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c)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때 기분은 어떠했나요?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때론 쉬워 보이기도 하고, 때론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전화만 하여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안에 진심이 담겨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다른 이를 기꺼이 받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기만을 바랄 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떠올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받아들여 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말만이 아닌 마음을 담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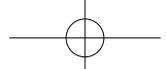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14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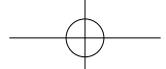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소서

-칠원본당 구역분과장 안분이(젼마)-

칠원본당은 1916년 함안본당 소속 칠원공소로 출발했습니다. 1951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고, 1979년 1월 16일 준본당으로, 1980년 1월 10일 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준본당이었을 당시 최봉원(야고보) 신부님의 열정으로 많은 신자들이 입교하였고, 2016년 12월 17일에는 여인석(베드로) 신부님과 본당 교우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새 성전을 봉헌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5일에는 본당 설립 38주년 및 본당 관할 장암공소 설립 10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올해는 본당설정 40주년과 배진구(베드로) 신부님의 사제서품 40주년의 겹경사를 맞이하여 1년 내내 다양한 신심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묵주기도 40만단 드리기, 십자가의 길, 성경 읽고 쓰기, 가정기도, 성체조배, 특강, 성령세미나 등을 통해 영성을 함양하고, 국내외 성지순례, 작은 음악회, 사랑 나눔 바자회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주임신부님께서 성가대의 타 본당 파견, 교구 음악회 참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 시기로 하였습니다.

칠원은 2년 전 읍으로 승격되고 그사이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현재는 아파트구역(대동, 선두, LH, 금안, 에이스)과 자연부락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모임에 불편함이 있지만 주일미사 안내, 커피봉사, 노인대학 음식 준비 등의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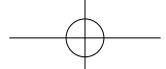


함께하는 소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이 건립되면서 청소구역도 늘어났지만 항상 열심한 마음으로 정성껏 쓸고 닦으시는 반원들과 구역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본당설정 40주년을 맞이하여 쉬는 교우를 위해 카드를 보내고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많은 이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저희와 함께 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칠원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2. 말씀 나누기를 위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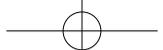
2) 성경 해석

가톨릭교회의 성경 해석은 ‘교회의 신앙’, 곧 “성경 전체의 불빛이
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주님의 말씀〕,29항 참조) 그리고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
백성에 의하여, 하느님 백성을 위하여,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백성과의 이러한 친교 안에서만 우리는 참으로
‘우리’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핵심
속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주님의 말씀〕, 30항)

나아가 교황청 성서위원회의 문헌에 따르면 “성경 본문의 올바른 이
해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유사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
락됩니다. … 독자가 성령의 생명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 성경이 이야
기하는 실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입니다.”(교
회 안의 성서 해석,Ⅱ,가,2) 그러므로 성경의 참다운 해석은 “지적
인 것으로 그칠 수 없고 또한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
에 따른’(갈라5,16) 삶인 교회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말씀,38항) 이러한 뜻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바오로 사
도의 말씀(2코린 3,6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에 힘입어 “믿음의 내적 은총 없이는, 복음의 문자도 사람을 죽일수
있습니다.”(신학대전, I - II ,q.106,art.2)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3) 전례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거룩한 전례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오
늘” 말씀하시고, 백성은 그에 응답하는 “탁월한 장소”입니다. “전
례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현재적이고 살아 있는 말씀으로 기념



되며, ...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건의 '오늘'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라고 권고하시며 몸소 그렇게 하신 대로, 교회 전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읽고 풀이해 주신 그 방식을 충실히 따릅니다.”(「주님의 말씀」,52항;「미사 독서 목록 지침」,3항) 곧, 예수님께서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루카24,27)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축복하신 다음 쪼개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루카24,31) 고 증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말씀으로[말씀전례], 그 다음에는 빵을 쪼개는 행동으로[성찬전례]”(「주님의 말씀」,52항)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이 이전에 가르쳐 주셨던 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 「소공동체 교육교재 <한마음 한 뜻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사목국 일정

■ 지구별 구역분과 위원장 모임 안내

지 구	일 시	장 소
마산지구	5월 29일(수) 오후 2시	양덕동성당
창원지구	5월 31일(금) 오후 2시	반송성당
진주지구	6월 5일(수) 오후 2시30분	신안동성당
거제지구	6월 7일(금) 오후 2시30분	고현성당

- 대 상 : 각 본당의 구역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총무
- 신 청 : 교구 공문을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 문 의 : 055)249-7021~3